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17 May 2004 (morning)

Lundi 17 mai 2004 (matin)

Lunes 17 de mayo de 2004 (mañana)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조정장사·백화점면주(베타스 베트 대표,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 총장)·예술대학원 사전과·장사)
이론·최 19:00~21:00, 실습·토 11시부터 12회
300,000원

한겨레 문화센터 34기 여름강좌

경희대 경영대학원·호서대 문화대학과·동률장)
조정장사·문화산업 분야 전문가 2인기수별 변경·
기준 수강자 초청장의 참여 가능)
금 20:10~22:00 11회 200,000원

1. 사전의 이해 - 전반적인 사전의 기본학제적 커리큘럼을 이해 (이론) / 2. 슬리어드 펠름에 관하여 - 커리큘럼을 중에서도 슬리어드의 특성과 용도 (이론) / 3. 고급과 특수 수수작업 - 인물사진의 촬영 시 고리를 주제로 기법의 이해 (이론) / 4. 디깅의 특성을 조명해보자 / 4. 성형술의 원리를 갖는가 / 7. 문화영역에서 R&D의 사례들 - 1) 구조혁신 (2) 조사분석 3) CT와 미디어기술 / 8. 마케팅과 고객관련 서비스가 연결된 분야들 / 9. 사고원리와 표현기법으로서의 디자인 / 10. 광고·크리에이티브 전략에 서 배워야 한다 / 11. 미디어 시대의 문화산업 케팅 12. 상상력·워크숍·미래의 문화산업

* 1박 2일 세미나 비용 별도

과정 1971 (6월 23일 개강)

■ VJ : 디지털 비디오저널리스트
(동부 직능 과정 - 혼연위탁계약서 6월 23일까지 추가 제출)

장사·인증현 M&C Partners 대표이사, 전 SK그룹 CRM팀장·제이비씨 SP부총·동국대 관공경·법학과·법·교수, 국제인증·프로모션 전문가(SPD))
월 10:00~12:00 10회 초중급 과정 | 100,000원
(* 고급과정은 150,000원)
* 창구입비 30,000원 및 재료비 20,000원 별도 / 첫날 준비비 30cm 저·시프·자루개 각각 1회

과정 1972 (6월 23일 개강)

■ 경영·직무

■ 청의역향상 워크숍 1차 : 0이디어 100배 끌리기(6월 20일 개강 / 신설)

판소리반 (6월 20일 개강)

■ 판소리반 (6월 20일 개강)

페인팅 워크숍 5기 : 페인팅의 짙은 미술사들, 오포라인에서 만나다 (6월 21일 개강)

장사·창작인용대 국제예술문화학과(우리 대표)
금 14:00~16:00 12회 100,000원

디자인 워크숍 6기 : 디자인의 짙은 미지 활용 (평일반: 6월 18일 개강)

장사·판송(mv.dreamwiz.com/pentition), 개성인
는 외국적 벌치로 입도적인 매니아동·형성·공동·일
리스트레이션 / ACT1 scene8), 조쉬를 힘
(www.joshclub.net), 디자인스튜디오 TV시리
즈 ESP Kids' 캐릭터 디자인)·

로 A부 14:30~16:30 B부 17:00~19:00 8회
120,000원 (한겨레 만화·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출신 학원은 10% 할인)

사진기초강좌 : 사진으로 얘기하는 세상 (6월 21일 개강)

장사·류우종 (한겨레 21 시선부 기자)
토 10:30~12:30 10회 150,000원

작품 사진반 (6월 21일 개강)

서울·다큐멘터리·일기자는 농(農)을 찾아서
장사·홍정의 (동양대 사진과·장사)·
장·www.sajinmaeul.com)

대금반 (6월 19일 개강)

장사·김영민 (서울대 국악과·률·국악과·장사)
목·총금 10:00~12:00 3회 100,000원

단소반 (6월 19일 개강)

장사·김영민 (서울대 국악과·률·국악과·장사)
목 13:30~15:30 3회 100,000원

문화콘텐츠 : 개발과 기획 (6월 20일 개강)

금 15:00~17:00 (이론수업은 토, 아외활동영은 일)
13회 200,000원

문화콘텐츠 : 개발과 기획 (6월 20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손정호(씨네 21 사진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한자공예(초·중급과정 / 고급과정) (6월 23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한자공예(초·중급과정 / 고급과정) (6월 23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문화·예술 인물사진과 스튜디오 작업 (6월 17일 개강)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 작품·인증·판구들은 카뮤니티 사계로 떠나는 차
수사진반' (www.livinginphoto.com/iekt) 활동을 통
해 지속적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2003.4. 서장을
로나온 후전면 등)

※ 서문화연구소와 공동주관구조장(saboculture.co.kr)
장사·이인영(문화경영 컨설팅 대표), 김정
숙(한국문화신문화재단 문학사업부 문학창조팀장)
* 전형과 평가 기준은 1. 저작·2. 출판·3. 문학·4. 미술·5. 음악·6. 춤·7. 축제·8. 축제·9. 춤·10. 춤·11. 춤·12. 춤·13. 춤·14. 춤·15. 춤·16. 춤·17. 춤·18. 춤·19. 춤·20. 춤·21. 춤·22. 춤·23. 춤·24. 춤·25. 춤·26. 춤·27. 춤·28. 춤·29. 춤·30. 춤·31. 춤·32. 춤·33. 춤·34. 춤·35. 춤·36. 춤·37. 춤·38. 춤·39. 춤·40. 춤·41. 춤·42. 춤·43. 춤·44. 춤·45. 춤·46. 춤·47. 춤·48. 춤·49. 춤·50. 춤·51. 춤·52. 춤·53. 춤·54. 춤·55. 춤·56. 춤·57. 춤·58. 춤·59. 춤·60. 춤·61. 춤·62. 춤·63. 춤·64. 춤·65. 춤·66. 춤·67. 춤·68. 춤·69. 춤·70. 춤·71. 춤·72. 춤·73. 춤·74. 춤·75. 춤·76. 춤·77. 춤·78. 춤·79. 춤·80. 춤·81. 춤·82. 춤·83. 춤·84. 춤·85. 춤·86. 춤·87. 춤·88. 춤·89. 춤·90. 춤·91. 춤·92. 춤·93. 춤·94. 춤·95. 춤·96. 춤·97. 춤·98. 춤·99. 춤·100. 춤·101. 춤·102. 춤·103. 춤·104. 춤·105. 춤·106. 춤·107. 춤·108. 춤·109. 춤·110. 춤·111. 춤·112. 춤·113. 춤·114. 춤·115. 춤·116. 춤·117. 춤·118. 춤·119. 춤·120. 춤·121. 춤·122. 춤·123. 춤·124. 춤·125. 춤·126. 춤·127. 춤·128. 춤·129. 춤·130. 춤·131. 춤·132. 춤·133. 춤·134. 춤·135. 춤·136. 춤·137. 춤·138.

Blank page
Page vierge
Página en blanco

본문 B

- ① 넉 달 전 그를 버리고 서울을 떠나던 날은 바로 이웃 I 씨에게 서울에 남아 있는 동안 만이라도 우리 바둑이를 좀 돌보아 달라고 몇 말의 먹이를 맡겨두고 나서 마치 바둑이가 말귀를 알아듣기나 하듯이 “집을 잘 보고 있으면 머지 않아 다시 돌아오마, 응.” 하면서 그를 타이른 나였다. 그후 이웃 I 씨도 불과 일주일 만에 서울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 넓은 고궁 속, 춥고 시장한 한겨우내, 공포만이 것들인 어둡고 외로운 밤들을 우리 바둑이는 과연 무슨 수로 살아남아 준 것일까.
- ② 나는 바둑이를 안고서 단숨에 거리로 나왔다. 우선 굽주려 지친 바둑이가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세종로 네거리에 나와서도 헬쑥한 아주머니가 초코릿이나 양담배 부스러기니 하는 따위들을 길가에 손바닥만큼 펴 놓고 텅 빈 거리를 지키고 있을 뿐 바둑이가 먹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저녁도 그 다음날도 바둑이는 밥을 주어도 먹지 못했다. 굽주림에 지친 그의 내장은 대번에 곡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조금씩 먹기 시작한 바둑이는 그림자처럼 한시도 내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텅 빈 서울 장안에서 안전한 숙소가 없던 당시 인기척도 없는 덕수궁 안 빈 집(미술관장 사택)에서 혼자 자야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 때 만약 바둑이가 없었던들 그 어둡고 무거운 밤들을 아마나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 ③ 바둑이는 원래 베릇대고 방 안에는 못 들어오는 것으로 각오하고 있었다. 내가 혼자 (X_____) 어둔 방에서 면 포성을 들어면서 뒤척거리고 있으면 바둑이는 내가 벗어 놓은 군화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숨소리를 째근대면서 방 안을 살피곤 했다. 때때로 문을 열고 회중전등으로 얼굴을 비춰 주면 바둑이는 웅크린 채 꼬리를 (16_____) 저으며 좋다고 한다. 방석을 주어도 밤마다 그는 내가 벗어 놓은 군화 위에만 올라 앉아 불편한 잠자리를 길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밤 사이만이라도 떨어져 자야 하는 그리운 주인의 체취를 즐기려는 속셈이었는지 또는 곁으로는 다정한 체 하면서 정 급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死地에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던 믿지 못한 이 사나이가 밤 사이에라도 또 잠든 틈을 타서 그 군화를 신고 그 때처럼 어디론지 훌쩍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아서였는지도 모른다.
- ④ 아니나 다를까 4 월 하순의 어느 날 중공군의 제 1 차 춘기 공세가 서울 변두리에 다가왔다. 한밤내 우레 같은 포성이 쉴 사이 없고 귀를 기울이면 시청 앞을 지나는 군용 차량들은 줄곧 남쪽으로 달리는 듯싶었다. 그날 저녁 서울은 무거운 암흑 속에서 산너머의 섬광이 번뜩이는 가운데 온통 피난 때문에 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바둑이는 그동안 나와 함께 두 기를 굽고도 그림자처럼 나를 따르고 있었다. 결코 이번만은 너를 놓칠 수 없노라는 듯싶어 보였다. 가마니에 병자를 싣고 질질 끌고 가는 처절한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나를 태워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는 젊은 아낙네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애는 듯한데 나는 바둑이를 안고 최후의 철수열차에 연결한 우리 화차에 올랐다. 어두운 역두에서 방금 눈물을 닦으며 작별한 늙은 수위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바둑이와 나는 오래 응시하고 있었다.

⑤ 수십 개의 소개화차를 연결하느라고, 한밤내 열차는 앞걸음질 뒷걸음질을 치며 난폭한 충격을 우리 화차에까지 주고 있었다. 그 때마다 바둑이는 한 번 덴 가슴에 놀라서 동요했고 가까워진 포성과 폭격의 우레소리가 그를 자극해서 바둑이는 내 가슴에 안긴 채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지 못 했던 것이다. 훤히 날이 밝은 새벽 또 한번 큰 충격이 우리 화차에 오자 바둑이는 (17_____) 내 가슴을 벗어나서 벌써 레일 위를 남쪽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나도 화차에서 뛰어내려 바둑이를 따라 달렸다. 나의 숨이 턱에 닿도록 지쳐서야 겨우 바둑이는 발랑 누워서 나에게 용서를 빌었다. 기관차는 (18_____) 먼데 기적은 (19_____) 울리며 우리를 부르는 듯 했다. 그 때 기차가 우리를 버리고 떠날까 봐 우리는 바로 기차가 올 레일위를 달리고 있었다. 기관사는 이 판국에 개 한 마리가 다 무어냐고 고함을 쳤지만 나는 사과할 겨를도 기운도 없었다. 그는 불쌍한 바둑이를 내가 또 다시 이 死地에 버리고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심정을 알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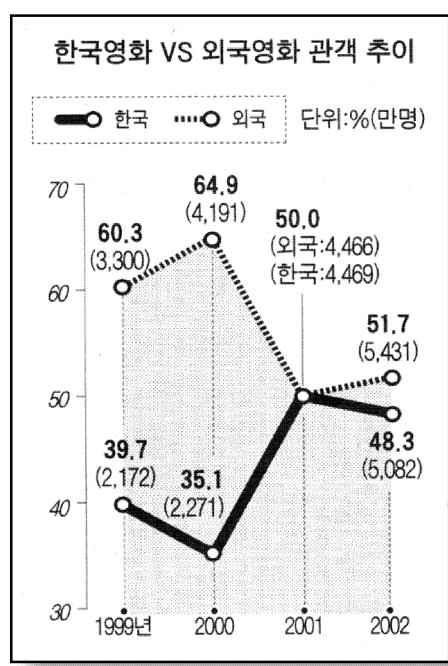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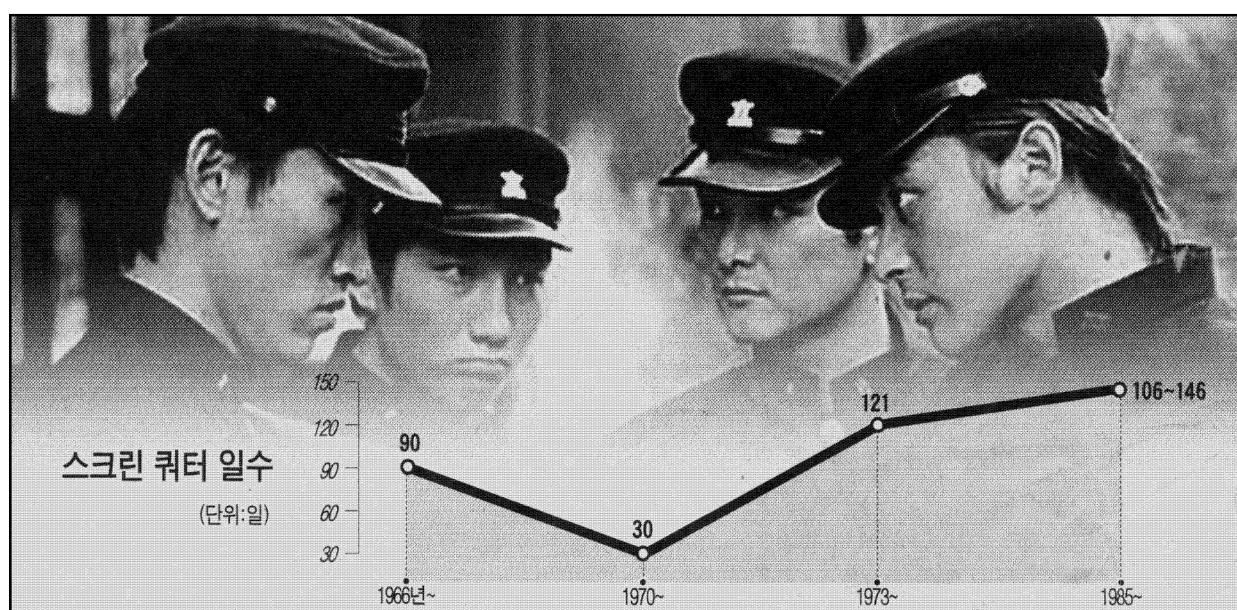
본문 C

틴틴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2001년에 나온 ‘친구’입니다. 2백 57만명이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답니다. 외국영화로는 1백 97만명이 본 ‘타이타닉’이 1위입니다만 ‘쉬리’(2백 44만명)에도 못 미칩니다.

- ❶ 전체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관객 비율을 보면 48.3% 대 51.7% (2002년 기준)로 외국영화를 본 이들이 약간 더 많습니다. 외국영화 거의 대부분은 미국영화(48.8%)입니다. 그래도 수백억원의 돈을 들이고 첨단기술을 동원해 만드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한국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은 셈이니 영화로만 보면 ‘국산’이 ‘외제’와 멋진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❷ 그런데 한국 영화는 국내법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즘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오는 ‘스크린 쿼터’입니다. 극장 스크린 중 일정 분량을 한국 영화에 할당(쿼터)했다는 의미에서 스크린 쿼터라고 합니다. 즉 영화관에서 반드시 연중 1백 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등이 20일씩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영화관들이 실제로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날은 최저 1백 6일입니다.
- ❸ 스크린 쿼터는 한국영화가 지금처럼 큰 인기를 끄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1980-90년대만 해도 한국영화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애써 만들어 봤자 관객들이 별로 찾지 않고, 그러니 영화관 측에서도 가급적 한국영화는 상영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이때 그나마 영화관들이 한국 영화를 내걸도록 만든 것이 스크린 쿼터였습니다. 영화제작자나 배우 입장에서 보면 (22제품)를 잘 만들기만 하면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23창구)는 안정적으로 확보된 셈이었죠.
- ❹ 그러는 사이 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아지면서 한국영화가 발전하기 시작해 좋은 영화가 쏟아졌고, 관객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영화시장도 이제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난해 영화시장의 (33)은 6천억원이 넘었습니다. (34)가 늘어난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35)도 무척 빨랐습니다. 99년 매출액이 3천억원도 안 됐으니, 3년 만에 배 이상으로 성장한 것이지요. 게다가 영화산업이 잘 되면 비디오, 음반,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른 문화산업도 함께 커집니다.
- ❺ 상황이 이러니 외국인들은 스크린 쿼터를 눈엣가시로 여깁니다. 스크린 쿼터는 한국 영화시장에 외국 영화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보호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스크린 쿼터가 없으면 한국에서 외국영화를 훨씬 많이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멕시코에선 스크린 쿼터를 축소한 후 멕시코 영화가 몰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영화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미국 영화업계와 미국정부는 우리 정부에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라고 요구합니다. 또 한국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 간에 상호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호투자협정이 맺어진 나라의 기업이나 국민에 대해서는 외국인인데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양국간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 ⑥ 경제부처나 기업가들은 상호투자협정이 맺어지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미국에서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란 인식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외국의 투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상호투자협정을 꼭 맺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스크린 쿼터를 줄여주자고 합니다.
- ⑦ 하지만 스크린 쿼터를 한국영화산업의 보호막이라고 여기는 영화계나 문화관광부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요. 한국 영화산업의 몰락은 단순히 수천억원대의 시장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화엔 만드는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들어가게 마련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영화를 주로 보게 되면 한국적 정신과 문화를 잃어버린다는 얘깁니다.
- ⑧ 경제계에선 요즘 한국영화가 재미있고 좋으니 스크린 쿼터가 줄어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문화계에서는 한국영화가 곧 침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틴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본문 D

공모전 뚫어 취업도 뚫은 ‘한게임’ 기획담당 최민영씨

“신화적인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최근 한 게임사이트의 공모전에 입상도 하고 원하던 직장으로 옮기게 된 최민영(25) 씨는 벌써부터 큰 포부를 내보였다. 최 씨는 최근 한게임이 주최한 게임공모전에서 시나리오 대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을 탔다.

5 정작 최 씨를 들뜨게 한 건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게임업체 입성의 꿈을 수상과 함께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다. 입상자에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한게임의 약속에 따라 다음달부터 출근을 해 게임기획 부분에서 일하게 된다. 상고를 졸업한 최 씨는 그동안 전자업체를 거쳐 건설자재 업체에서 일해 왔다.

10 최 씨가 기획한 게임 이름은 ‘레인보 존’이다. 테트리스와 체스의 전략을 가미한 퍼즐보드게임의 일종이다. 80여쪽짜리 기획서를 만들기 위해 백 번도 더 색종이를 붙였다 뺐다 하며 공을 들인 게임이다. “분명히 재밌는 게임”이라는 최 씨는 그 근거를 “퍼즐게임에 블록마다 특징을 담은 새로운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15 물론 이런 실력을 쌓기까지 최 씨의 게임에 대한 집착은 대단했다. “초등학교 때 테트리스를 시작으로 퍼즐에서부터 격투기 게임, 스타크래프트 등 온갖 종류를 다 좋아했어요. 점심시간이면 학교 담장을 넘어서까지 오락실을 들락거렸죠.” 온라인 고스톱이나 테트리스는 더 올라갈 단계가 없을 정도의 수준급이라고 자랑했다.

20 판타지나 무협, 공상과학 작품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애초 만화가나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꿈꿨지만, 결론이 정해진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게임기획자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 입상한 작품말고도 두 개의 게임 기획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5 “여성 기획자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잘하다면 게임 기획을 하고픈 여성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될 겁니다.” 최 씨는 게임 개발에 필요한 상상력을 타고난 듯했다. 낮잠을 자든 밤잠을 자든 365 일 꿈을 꾸는데, 맥가이버나 드라큘라가 등장하기도 하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장면 같은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